

BNK경남은행, 코로나19 극복 위해 금융·인도주의적 지원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금융 지원은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끊임없이 쏟아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긴급 금융지원안'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 실사를 통해 관광·여행·숙박 등 업종과 중국 수출 실적 보유 기업 등에 5억 원 이내 긴급자금과 최대 10%포인트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을 유예한다. 수출입 기업에는 수출환어음 만기 연장과 부도 처리 유예를 비롯해 수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수출입 관련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준다.

은행권이 공통으로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대출'도 참여하고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권 공통 한도가 1천억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는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경상남도·울산광역시와 함께 '지역 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부문 7천억원, 서민금융 부문 2천억원, 특별협약 등 소상공인 부문 1천억원 등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에 나섰다.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159곳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긴급 운영자금이 있어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 신용대출'이라는 전용 금융상품도 내놨다. 기존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외부신용등급별 대출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금융지원과는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헌혈 기피로 혈액 수급 어려움이 뒤따르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했다. 각 영업본부와 임직원들은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의료진, 지원의 사각에 놓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물품 200세트'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에 기탁했고, 국립마산병원에 '코로나19 의료진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황윤철 은행장은 "금융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연속성을 갖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그 날까지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



1 황윤철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창원 가음정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 황윤철 은행장(왼쪽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이 지역경제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세상이 열린다!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세상 편한 로그인
한번의 모바일뱅킹 앱 실행만으로 로그인까지 한번에 편하게

세상 빠른 이체
메뉴 전환없이 홈화면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안전하고 빠르게

세상 간편 인증
간편비밀번호(6자리), 패턴, FACE ID, 자동로그인으로 간편하게

*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